



전국부화인 정화추진 쉼기대회 개최

- 9월 29일, 체육회관 강당에서 -

전국부화인 정화 추진 쉼기대회가 본회 부화분과 위원회(위원장: 박준영) 주최로 지난 9월 29일 오후 2시 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을 위시한 전국의 부화인이 총 동원된 이날의 전국부화인 정화 추진 쉼기대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개시와 함께 새사회 건설을 위한 힘찬 악동이 전국에 메아리 치고 있는 이때 부화업계의 생산·유통상 비리와 부조리를 추방하고 전양제인이새시대 새 물결에 발맞추어 건전한 양계업 육성과 부화중계업계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본회 류종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수개월간 국내외의 많은 어려움속에서 이제 깨어나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 합심단결, 새사회 건설을 위한 기치가 높이 선 즈음 정부당국도 축산인들을 위해 축산진흥중앙회의 발족등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전양제인은 힘을 한데 모아 양제인의 모든 문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

하는 한편, 서로가 신뢰하는 업계를 만들기 위해 부화인 스스로가 업계정화를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전양제인은 우리의 사업에 신경쓰기에 앞서 전 국민에게 건전한 육류공급을 공급한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산에 임하는 한편 이제는 생산뿐 아니라 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한 류회장은 자리를 빌어 새 헌법안의 주요 내용등을 설명 홍보 하였다.

이어서 박준영 부화분과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양계업은 집약적으로 단기간내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어 국민보건에 기여도가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무계획적인 생산과 치열한 과잉경쟁으로 말미암아 부화업자와 생산업자간에 불신이 때때로 야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 새시대를 맞이해 성실한 사람이 잘 살수 있는 풍토의 사회에 이러한 부조리와 불신을 제거하여 우리 부화업의 과잉경쟁이 바로 우리 개인, 나가서 국가적인 큰

손실임을 깨달아 적극적인 생산조절을 위해 노력 할 것을 다짐했다.

또 박위원장은 그간의 경위설명과 함께 우리 업계의 정화를 위해 부화인 스스로가 가일층 힘을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이상윤부위원장의 결의문 채택이 있어 모든 부화인들은 이 부위원장의 선창에 이어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힘있는 목소리로 제창 대회장의 열기를 올렸다.

(결 의 문)

- 우리는 우량한 병아리를 생산판매 한다.
- 우리는 무허가 부화장, 미등록 종계장 척결에 앞장선다.

- 우리는 정부 및 협회의 생산조절에 대한 지시 및 협의사항을 준수 한다.
- 우리는 생산조절을 통한 조생추 가격조정, 계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앞장서며 생산과잉에 의한 텅핑행위의 지양 및 지나치게 높은가격 형성으로 양계농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매월 생산보고를 철저히 이행한다.
-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계를 완전히 등록한다.
- 우리는 과대 선전으로 양계농가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류종래 회장)



(박준영 위원장)



(이상윤부위원장)



양계업계 원로 간담회 개최

— 광범위한 의견청취 —

본회에서는 장기간 불황에 처해있는 업계의 활로를 찾아 활성화를 하기위한 방안으로 양계업계의 원로들을 초빙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양계업계 원로간담회를 지난 9월 11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대한양계협회의 역대회장을 역임한바있는 윤상원학장, 이재근교수, 오봉국교수, 이창열사장, 오세정교수의 차두홍사장, 박근식과장등 학계, 업계의 원로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계업계의 활성화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양계업계 원로 간담회 전경.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거 협회의 성장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의 전달등 학계에서 앞장서 협회를 이끌어왔으나 이제 업계가 급성장, 비대해진 가운데 전실한 업자들로 구성된 업계 중심의 협회로 단합해 발전해 나가야 하며 필요하다면 원로들 모두 합심하여 뒤에서 힘있게 도울것을 전했다.

또 행정당국의 정책에 언급, 현재 축산행정기구의 대폭확장이 필요하며, 이에 더불어 양계전담기구의 신설도 필요하며 각종 지원의 혜택이 토지개발, 초지개발, 한우비육, 우유사업등에서부터 양계부문에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전양계인은 양계인 스스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작은 힘을 모아 큰힘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 생산물의 제값받기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할 때라고 전하고 축진 등 단체에서 브러일러처리 가공 뿐만 아니라 제란저장·가공 등의 산업에도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또 다른 축산업과는 달리 양계분야의 생산기반조성은 잘되어있으나 유통 소비 분야가 미비,정부차원에서는 소비자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할때라고 말하고 요사이 배합사료회사 가동율이 50%이하를 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D차관등으로 농협사료공장의 증설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자금이 양계유통, 가공, 소비홍보등의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는 정책의 아쉬움을 논의했다.

또 모임은 새시대 새정부에 발맞추어 자신의 사업에 앞서 뚜렷한 사회관과 국가관을 갖고 업계의 단합을 촉구 강한 협회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회의를 마쳤다.

생산비 절감운동전개결의

— 제 3 차 육계분과위원회개최 —



지난 9월 12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제 3차 육계분과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류종래회장은 새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분야에도 여러가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양계업계는 사료가격인상등 여러가지 애로 요인이 겹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분야별로 스스로 정화운동을 전개해 불합리한 모순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타인을 비난하기전에 스스로를 반성하고 가깝고 손쉬운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또한 생산자의 단합된 힘으로 닥쳐오는 난관을 타개하고 유통에 적극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업계의 주인이 되도록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회의에서는 초생추가격문제, 생산조정, 생산비절감방안 생산자단합에 관한 문제등이 토의되었으며 부화업계의 정화작업 추진을 위해 이철우 본회 육계분과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전국적인 육계생산자 대표들로 구성된 육계업계 정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화 추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이철우(본회육계 분과위원장)

이태규(인천), 양혜석(양평), 백명기(김포), 공용구(대전), 우영택(청주), 박철(경북), 정철문(경남), 황은현(전남), 문창윤(전북)

육계 및 채란분과

정화결기대회 개최예정

— 보다 밝은 업계풍토 조성위해 —

양계업계의 비리와 타성을 스스로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보다 밝은 업계풍토를 조성하고 당면하고 있는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본회 채란분과(위원장:최창해)육계분과(위원장:이철우)정화결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창해 채란분과위원장)



(이철우 육계분과위원장)

육계정화결기대회는 10월 7일(화)오후 1시 30분 본회회의실에서 결기대회와 백명기(김포지역)씨의 생산비절감사례발표와 신정일(유일농원)씨의 합리적인 육계경영에 대한 강습회를 아울러 갖을 예정이다.

또 채란분과 정화결기대회는 10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본회회의실에서 결기대회와 최창해교수(채란분과위원장)의 효과적인 강제환우방법에 대한 강습회를 갖은후 채란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를 갖을 예정이다.

제 4차 부화분과 위원회 개최

— 정화위원회 구성도 —

지난 9월 8일 본회에서는 금년도 제4차 긴급부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본회에 강력히 지시한 불량종계 규제방안과 초생추 공급가격 조절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화정화 위원회 구성

박준영, 이상윤, 신흥중, 이보연, 정동현, 차상진, 정재덕, 송두진, 김

영환, 손종현, 조만옥, 강세춘, 김성경, 정석택, 박인수

둘째, 초생추 협정가격 설정
육계초생추 : 200 ~ 300원

산란계초생추 : 350 ~ 400원

셋째, 보유종계를 9월 30일까지 완전히 등록을 하고 이 기간중 종계등록비는 15원으로 한다.

넷째, 매월 생산보고를 철저히 이행한다.

다섯째, 위사항 불이행시 1차 경고 및 지상공개 2차 불이행시 정화위원회 명의로 당국에 건의 또는 고발조치한다.

여섯째, 오는 9월 29일 전국 부화인 정화추진 필기대회를 개최한다.

종계등록 특별기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본회는 제 4차 부화분과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종계등록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내에 등록하는 종계에 대하여는 종계등록비를 30원에서 15원으로 인하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따라 9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설정하였으나 9월 29일 대한체육회관에서 개최한 전국 부화인 정화추진 필기대회에서 종계등록 특별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0월 15일까지 등록분에 대하여는 종계등록비를 수당 15원으로 인하하여 보유종계 전부를 등록하도록 촉구하니 이 기회에 종계를 완전 등록하여 생산조절에 앞장서 줄 것을 전국에 있는 종계장에 강력히 촉구한다.

본회임직원 종합안보교육 실시

- 새헌법안의 주요내용 설명도 -

본회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새정부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지난 9월 30일 오후 종로 2가 소재 대한잠사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잠사협회, 양돈협회 등 농수산부산하 법인단체 임직원전원이 함께 참석한 이날 교육은 슬라이드를 통해 한반도 주변정세에 따른 북괴의 최근동향등의 종합 안보교육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로 복지사회건설과 정의로운사회구현을 위한 새헌법의 주요내용 설명과 새헌법안의 역사적의의 기본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검정위원회 개최

— 제 2회 육용계 검정계획안 확정 —

지난 9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년도 제 3차 검정위원회에서는 79년 4월부터 실시해온 14회 산란계 경제능력에 대한 최종성적을 검토함과 아울러 현재 실시중인 제 15회 산란계 및 제 1회 육용종계 중간성적도 검토하였다.

검정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제 15회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성적은 축산시험장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제 1회 육용종계 경제능력 검정에 뒤이어 금년도에도 제 2회 육용종계 검정 계획안을 확정했고 각 GPS농장에 출품의뢰 하였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출품기간 : 1980. 10. 13~18 (6일간)

2. 출품수수 : 암컷 200수
수컷 50수

3. 출품장소 : 본회 김포 검정소

4. 출 품 료 : 구당 20만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회 지도조사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는 제 2회 육용종계 검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회, 협회기능 및 업무강화방안 당국에 제출

— 농수산부산하 협회 및 조합 개편작업에 따라 —

최근 정부당국의 각종 협회 및 조합통합 방침에 따라 농수산부의 산하 협회 및 조합의 개편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관계당국은 현재까지의 단체별 업무 및 활동실적을 감안 선별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실적이 현저하고 생산자 보호기능이 확고히 자리잡은 단체 및 통합이 완료된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본회는 양계업계의 특수성을 감안, 협회 고유업무외에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지부간사 회의 개최

9월 9일(화요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 각 도지부 간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직장정화 추진 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부별로 별도 정화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협회 운영 강화를 위한 좋은 의견을 상호 교환하였다.